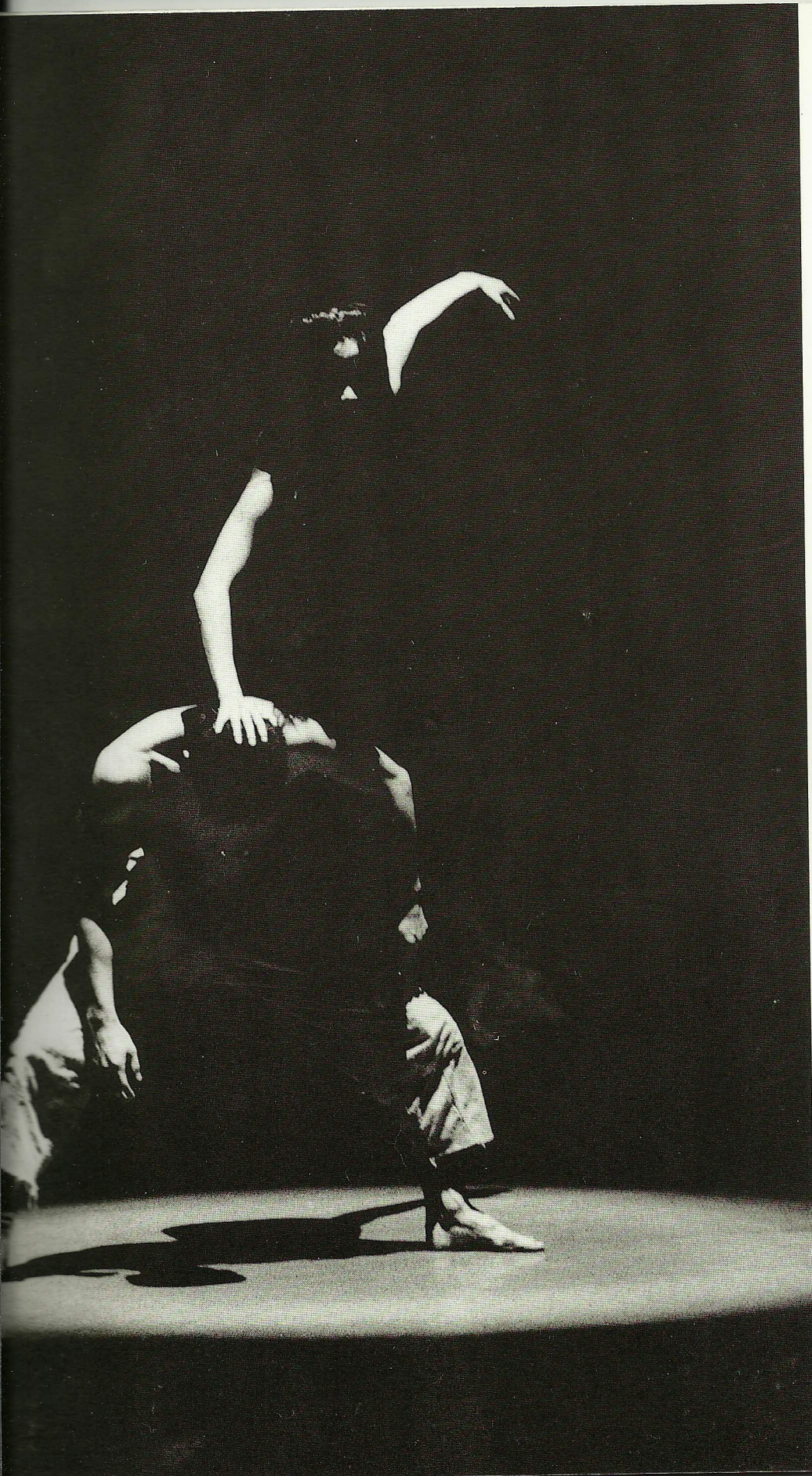


Lim Hyun Mi Modern Dance

# 임현미의 춤







작품 I (초연/1995년)

*Partner*

작품 II

*Tel :*

공중전화박스에서 잠이든 사람

늘여 찢어진 공중전화

온몸에 전화선을 감고 쓰러져가는 인간

전화선에도 감전되는 인간

세사람 중 두사람만이 통화를 할수 있고

그 나머지 한사람은



### 작품 III

#### 상자속의 아버지

어느날 아버지 시장에서 두꺼운 마분지, 풀, 삼십센티 자를 사오시다. 아버지 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가위로 종이를 오리시다.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이 여섯개 아버지 커다란 상자를 만드시다. 아버지 그 속에 들어가시다. 바람도 빛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홀로 안에서 풀칠을 하시다.

아버지 답답하지 않으시나요. 그 속에서 무얼 하세요 아버지 말이 없으시니 때론 벽뒤에서 사람을 놀래키듯 내미는 손. 아버지의 손은 그곳에서 나와 나의 목을 쓰다듬으시다. 나는 어느날 어느때 아버지 무엇을 흘리며 무엇을 깎아내는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상자속에 계시니까 왜 아버지는 상자속으로 들어 가셨을까 아버지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걸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상자속에 있으시다. 아버지는 새우처럼 등을 오무리시고 세상 많은 상자들 속에 이틀없이 놓였다가 꿈을 꾸 것일까 사랑이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집 빗방울이 천장을 때리고 벽면으로 흘러 바닥에 고이는 집 투명한 집 그린집이 이 적막한 땅 위에 네기둥의 기초를 잡으시고 발가락 걸리지 않고 이불을 빼앗기지 않는 집

세상을 살다보면 옷깃이 젖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나의 옷깃이 젖을 때 아버지 들어가신 사각상자의 여덟귀퉁이가 물에 젖어 축축해서 아버지의 발가락이 상자 밖으로 나올때 나는 가끔 무엇이 우리를 서로 젖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본다. 생각 같아선 왜 좀 더 질긴 끈으로 아버지와 내 몸을 묶지 못했던 것일까. 그저 바람이 불어오면 옷깃이 헤어지듯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 아버지 잠든 나의 머리맡에 동아줄을 풀어 놓으시고 계단없는 허공을 밟고 하늘로 올라 가시다. 아버지 왜 말한마디 없이 가시나요. 어느날 아버지 땅을 석자 남짓 파게 두어 당신의 상자를 통채로 뚫으시다. 뻗뻗하게 굳은 육체는 힘을 주면 풀린다.

구멍이 송송 뚫린 반지나 쇠불이 금과 은 따위는 인간의 육신에서 그렇게도 쉽게 떨어지건만 꾸짖 달지 않은 땅속에도 물을 수는 없듯이 아버지의 상자는 끝내 열리지 않으시다. 아버지 사각의 땅위에 몸을 가두시고 그 위에 흙을 덮으시다. 나는 아버지의 상자 위에 해마다 몸을 눕혔다. 그러던 어느날 까닭없는 답답함에 아버지의 상자를 두번 발로 구르다. 아버지의 상자가 빈소리를 내며 텅텅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들었다. 아버지의 빈 상자가 울리는 소리를. 세상에서 아버지의 상자를 그 위에서 발로 굴러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나는 아버지의 사각 상자를 사랑한다. 그 속에 잠든 아버지를 사랑한다. 나는 그 땅을 두번 발로 구르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춤추고 싶었다.

〈글 : 장우재〉

### 작품 IV

#### 새벽

새벽의 가장 가까운 곳에 혼자가서 울었다.  
간밤의 끝까지 쫓아간 곳  
그곳에서 너는 울었다.  
네 눈물은 떨림이다.

네 눈물은 새벽을 여는 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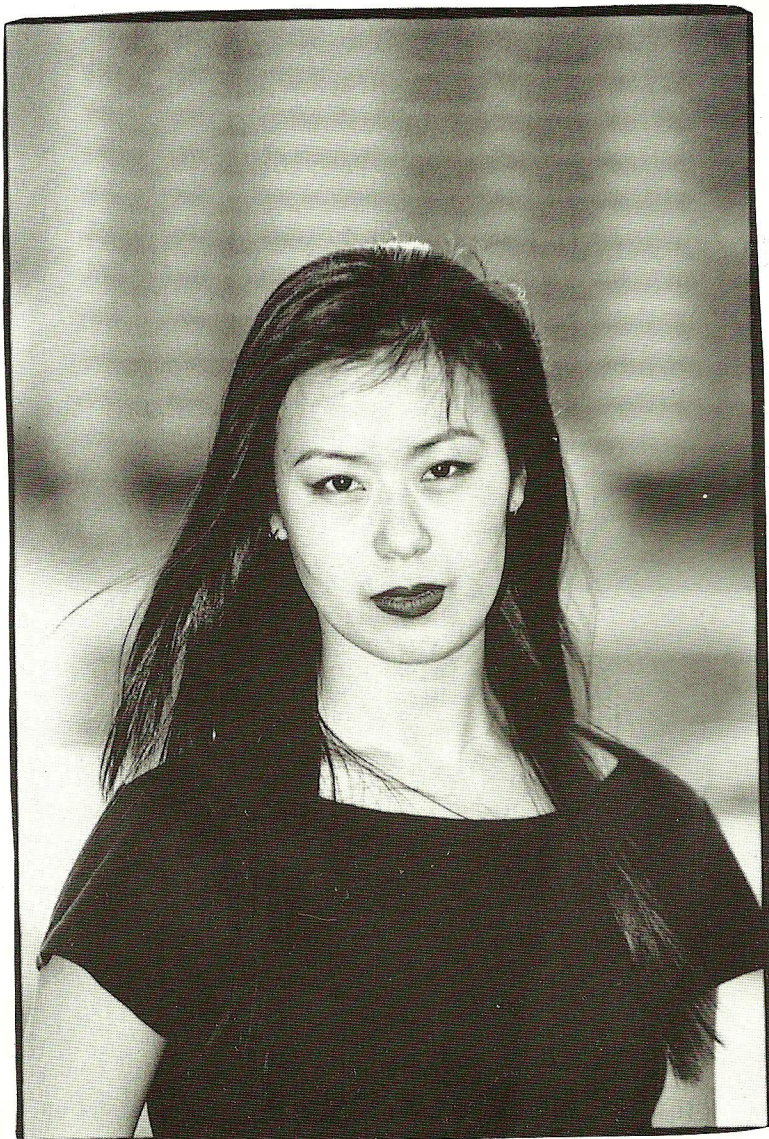
네 눈물에 새벽은 온다.  
척박한 이 도시의 지난밤 양심들이  
너의 비에 젖으며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네 눈물이 비가되어  
고단한 하루의 끝  
지쳐버린 양심들에 온몸적시며  
이 도시의 새벽을 짓는다.

#### 스텝(Staff)

안 무 : 임 현 미  
무대미술 : 백 철 호  
의 상 : 정 희 자  
음악편집 : 이 반  
무 대 : 박 동 민  
사 진 : 홍 용 해  
기 획 : 트러스트





임현미(Lim, Hyun-Mi)

- 1969 부산출생
  - 1992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1991 신인발표회 참가
  - 1992 동아 콩쿠르 금상 수상
  - 1992 부산현대무용단 정기공연 안무 "고독"
  - 1993 전국 무용제 '연기상' 수상 「광대별곡」 정귀인 안무
  - 1994 부산현대무용단 정기공연 안무 "미궁"
  - 1995 제5회 대구무용제 연기상 수상 "아버지의 나라" 김형희 안무
  - 1995 트러스트 창단공연 안무 "파트너"
  - 1995 제1회 트러스트 기획공연 안무 "방"
- 현,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정단원